

기억할 만한 지나침

기형도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도에게

20160042 구인용

드디어. 드디어, 강의계획서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고대하던 그 시인이 등장했다. 채 서른 해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한 시인, 내가 처음으로 筆寫해가며 암기했던 시들의 주인, 형도.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묻는다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이름으로 답할 것이다. 과거 그의 글을 읽고 난 뒤, 내가 추구했던 문장의 이상향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도 나는 매 장마다 다시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각각의 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다. 전문 인용할 시를 한 편만 고르는 것도 고역이고, 부분 인용해서 다루자니 앞뒤 문장을 빼는 것도 아쉬워서 차라리 남은 모든 에세이를 다 기형도에 대해 쓰고 싶다는 욕구마저 든다.

예찬에 가까운 에세이가 될까 우려되어 앞서 분명히 하고 가자면, 나는 기형도가 객관적으로 20 세기 한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그의 글이 과하게 우울하며 독자의 마음에 병을 전염시키는 유해한 글이라고 평하여도 반박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그의 글에서 나는 처음으로 시인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공대생의 신분으로 모순적이게도 글꾼이 되고자 하는 한 청년으로서, 또 나름 문학동아리도 활동하며 작은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기형도의 詩作의 근본이 되는 감정과 이유가 나의 그것과 닮았다고 느껴 그가 선배 같고 친형 같았던 순간이 여럿 있었다. 물론 필자라고 기형도 글의 ‘근본’을 감히 논할 정도의 이해를 갖추었을 리 만무하다. (고백하자면, 나는 기형도라는 인물을 그리 오래 읽어온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본 에세이는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기형도의 글과 연결 짓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형도와와 만남들을 모두 기억한다. 수식으로 가득했던 고등학교 시절, 시 한 줄 읽기가 참 어려웠던 때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보았다. 질투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추하다고 생각했기에 나보다 뛰어났던 주변의 영재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던 시기였다. 성적표를 확인한 뒤,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그 친구들이 괜스레 멀게 느껴지면 나는 속 좁은 스스로를 질책했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나 역시 성장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아예 그런 것들과 무관해져 기대를 없애고 결과에 순응하는 것. 전자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었고,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지쳐가고 있었다. 그 때 읽은 “질투는 나의 힘”에서 다음 구절이 나를 뜨끔하게 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 뿐이었구나.’

왜 나는 끊임없이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려고 했던가. 돌아보면 나는 내가 그들을 질투했다는 진실은 끝내 부정하면서도, 나는 내심 누군가가 나에게서 질투를 느끼기를 바랐었다. 열등감은 무시하며 우월감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 뿐이었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았다. 내 마음의 ‘너무나 많은 공장’을 돌아보며,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다. 결국, 나는 내가 자존감이라고 불러왔던 것이 사실은 자존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하염없이 슬펐다. 시험기간에 공부를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같은 학습실 친구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 성적에 구애 받지 않는 듯, 쿨한 척은 다 해놓고 사실은 그들과 자신을 견주어 보며 만족을 찾았었다고 고백했다.

페이스북에서 스쳐가듯 본 글 한 구절에 하루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나는 시인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는데, 기형도의 글을 시인의 이름까지 인지하며 읽은 것은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처음이었다. 문학의 트랙 동아리에 가입한지 2 주쯤 지났을까. 선배가 기형도와 김소월의 글을 두 편 씩 들고 왔다. 그 때 기형도 직후에 훔쳤던 김소월의 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빈 집”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외우고 있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가없는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그 후로 기형도의 글을 많이 읽었다. 형도의 글은 시인 동시에 독백이었다. 알레고리의 이면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느낀 그대로를 표현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의 언어로 흘러나왔다. 예컨대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鳥致院’)’에서, 무심히 던지는 비유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기형도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고 표현했기에, 그것은 톱밥처럼 쓸쓸해지는 것이다. 난생 처음 듣는 비유임에도 낯설지가 않다. 시인 스스로가 시적 표현을 부연하지 않으니, 이것이 의도적으로 문학적 수사를 위해 고심해서 만들어진 말 같지가 않다. 다시 말해 간혹 시인이 ‘애쓰는 것’이 드러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한 비극에 등장하는 노련한 배우의 애드리브 방백을 듣는 것 같다. 이 사람에게 세상이 곧 시상이겠거니 싶다.

야화에 따르면 형도는 이런 문장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지어냈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다. 재능을 질투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의 시 한 줄에 무너진 하루들이 너무 많았기에 소모된 시간의 불균형성에 조금 억울할 것 같다. 그의 글은 행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가는 비 온다”라는 시는 ‘간관들이 조금씩 젖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말 평범한 묘사지만, 그 이미지 하나로 먼지처럼 부유하던 감정들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진 레코드판 위로 축음기 바늘이 울려지고, 빗소리 같은 노이즈 속에서 침묵의 노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새 마지막 문장 ‘가는 비... 오는 날, 사람들은 모두 젖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로 시는 끝이 나고, 나는 앞에 펼쳐진 젖은 길을 걸을 자신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김광석의 노래 가사와 기형도의 시는 그런 ‘하루를 지배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쩐지 닮아 있다. 김광석이 형도의 글을 읽고, 그것을 반추하며 담배를 한 대 태우고, 견디기 위해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까. 잠시 좋아하는 가수와 시인의 만남을 상상해 보았다.

이어서 살았을 적의 형도의 모습도 상상해본다. 만약 연세대학교 문학 동아리에서 그를 만났다면 나는 그를 사람으로 좋아했을까? 그의 글은 어둡다. 분명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를 / 한번이라도 / 본 사람은 모두 /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書籍’)’라고 본인 스스로도 고백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에게 지쳐 저주하며 떠나가기 전까지 그를 미치도록 사랑했을 것이다. 그가 힘있는 표현들을 쓸 수 있었던 까닭은, 세상을 시로 표현하는 능력은, 그의 깊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라는 시에서 기형도는 마른 가지를 보며, (혹은 노인을 보며) ‘그럴 때마다 내 나이와는 거리가 먼 슬픔들을 나는 느낀다 / 그리고 그 슬픔들은 내 뒤편이 아니어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한다. 다음 연에서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죽어 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추악하다고도 평가하지만, 분명 기형도는 타인의 슬픔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괴로웠던 까닭은 남을 위해 슬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과 타인을, 삶과 세상을 연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감수성을 사랑한다.

문학의 트랙 선배가 들고 온 기형도의 또 다른 시, 그러니까 내가 접한 세 번째 형도의 시가 본 에세이에서 전문 인용한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었다. 기형도의 ‘연민’은 이 시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제목과 달리 그는 눈 내리는 겨울 밤, 홀로 울고 있는 한 서기를 지나치지 못한다. 무심결에 마주친 무안한 풍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있다. ‘침묵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고통스러워 한다. 울고 있는 서기를 중지시킬 수도 없지만, (서기는 알 도리가 없을지라도) 그가 울음을 그치는 순간까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텅 빈 사무실 안에 홀로 형도가 앉아있다.

누군가의 울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마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아파보라는 듯 무겁게 나를 치대는 파도 앞에서 그 사람을 그치게 할 수 없을 때, 익사할 것만 같다. 형도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 견디지 못해 종이 앞에 앉는 날이 있었다. 손날로 눈물을 닦아가며 젖은 종이에 꺾꺾 글자를 새기던 그런 날이. 형도는 분명 나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형도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 역시, 홀로 늦은 밤 방 안에 앉아 보았으니까. 그리고 글을 적었으니까.

많은 이유로 이번에 다시 읽을 때 새삼 와닿는 시였다. 지난 1 년을 겪으면서 은막이라는 작은, 그러나 버거웠던 동아리의 회장을 하면서. 새내기들의 탈을 벗고 심화 전공 과목들을 들으면서. 후배라는 존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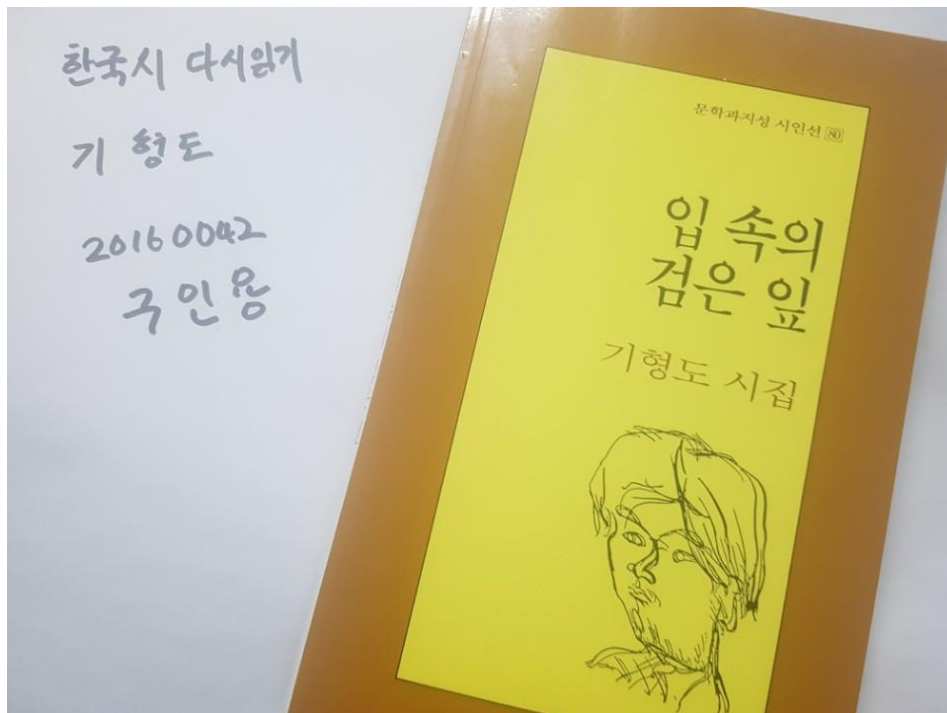
생각보다 막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앞선 이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다. 선배도 힘들었나요? 형도 고생 했었네요. 아빠도 이런 시간을 견딘 거겠죠. 나는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만도 못했네요. 나는 당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를 주고 받고 싶다. 절대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형도를 추억한다. 언젠가 문학의 뜨락에서 한 선배가 “형도”라는 시를 써왔었다. 나도 동인지로 접한 것이라 그 시의 주인 역시 대면해본 적은 없지만, 뜨락의 동인들에게 기형도라는 시인은 어느 이상의 마음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기형도의 시를 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잠시 그리움 비슷한 감정에 빠져 있었다. 마치, 그가 우리 동아리의 기억에 남는 한 선배였던 것처럼, 꽤 긴 시간의 생을 겹쳐 살았던 요절한 사촌 형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기형도를 ‘형도 형’이라고 부르곤 한다. 형도. 형도 형.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 이 말을 할 수 있겠다.

언제나 내 글은 너를 향한 편지가 되곤 한다. 나는 만나본 적 없는 너를 사랑한다.

P.S. 기형도를 예찬하는 글이 아니라고 서두에 밝혀 놓고선, 사랑 고백으로 글을 맺어버렸다. 2 페이지 분량까지 넘겨가며 형도 형과의 친분을 과시한 소감은 왠지 떳떳하지 못하다. 스스로를 기형도나, 그의 글 “나무공”에 등장하는 소년 등에 대입하고 난 후에는 언제나 죄를 시와 같이 짓는 듯한 수치심이 든다. 그러나 분량 제한을 넘겨 점수가 깎이는 일이 있더라도, 흑자는 필자를 ‘자의식 과잉’이라고 부를지라도.

이 글은 이대로 두기로 한다.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문학과지성사)

초판 1쇄 발행 1989년 5월 30일

재판 56쇄 발행 2016년 1월 28일